

# 세계종교지도자 1200명 28일 뉴욕서 모인다

## 유엔 '종교인 평화회의'...한국 13명 참가

종교인 세계평화회의가 28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밀레니엄 종교 및 영성지도자 세계평화회의'로 이름 붙여진 이번 회의는 97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발의, 유엔 차원에서 마련돼 1,200여명의 세계 종교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대규모 종교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사명, 국제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교의 역할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

이 대회 기간 중에는 유엔사무총장을 지원하는 '종교지도자 국제자문기구'가 구성되는데 이어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평화 정착 의지를 담은 '유엔평화선언'도 채택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한국의 종교지도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주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감사원장 정산스님, 교육부장 도원스님, 강원용 크리스찬아카데미 명예이사장, 최창규 성균관장, 한양원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

순진회총무원장, 만월 불광도원도전, 변진홍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등 10명이다. 또 이승현 새천년평화재단 이사장, 고은 시인, 김관대 새천년평화재단 사무총장 등 3명은 영성지도자로 참가한다. 이종에서 강원용 목사는 '세계평화를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조언하는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고은 시인은 유엔총회장에서 축시로 '평화의 노래'를 낭송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 동국학원 이사장 소환 결의

## 종립학교관리위, '탈종단화 보도' 등 따지기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당)는 16일 중앙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27차 회의를 열고 동국학원 책임자인 이사장을 불러 대학 당국의 '탈종단화' 언론 보도와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했다.

배 여부 총무원에서 조사해 종립학교관리위 다음 회의 때까지 보고토록 총무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교수 채용과 관련해 학교당국의 비리 내용을 밝혀달라는 2건의 탄원서가 최근 들어



11일 회의에서 열린 지리산문화제에서 부다갑스 '도리도리'가 공연하고 있다.

# "지리산 푸르게 낙동강 맑게"

## 지리산문화제 성황

지리산별 건설 백지화 및 지리산 살리기를 위한 지리산 문화제가 11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삼립승공원에서 열렸다. 함양·산청·남원·불교연대, 함양캠·덕천강택지화대책위, 진주환경연합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 30여개 단체 회원과 시민 등 7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함양초등학교 6년 임진희(13)양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마을이 사라져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은 물론 먼 훗날 고향이 없어 졌다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불교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은 "이번 행사는 지리산은 푸르게 낙동강은 맑게 이 강산을 청정국토로 만들자는 염원을 성취하기 위해 뜻을 모은 자리"라면서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대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 "21세기 상담법 '수행'서 찾자"

##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와 상담' 수련회

21세기 상담환경이 깊은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불교적 수행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이근후, 이대외대 교수)이 16일부터 18일까지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성 유수사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수련회'에서 제기됐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인간성에 대한 욕망과 허전함, 그리고 깊은 고독감 등으로 종교적인 힘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찰들이 상담실을 개설해 상담을 통한 포교와 사회참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통일이후 충격완화 문화 이질감 극복 종교적 상담 개발 ”

하며, 자신의 통제원리를 찾느냐 못찾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며 "이런 의미에서 종교의 역할은 증대되며 특히 서양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해답을 불교적 수행방법에서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현감(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도 "과로움에서 벗어나 안락한 세계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명상이라는 마을 수련방법을 탄생시켰다"며 "현재 병환자 80%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인 만큼 21세기에는 명상수련을 통한 자기치유방법이 가장 각광



불교상담개발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유수사에서 상담수련회를 개최했다.

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상담의 한계극복을 불교적 수행에서 찾았다. 운호군(가톨릭대 상담대학원)원장은 상담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바람직한 상담을 위해서 수행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깨달아 이론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박경석(리더십카운셀링센터)소장은 "앞으로 종교계에

서 통일에 대비한 문화적 충격의 완화와 이질감에 따른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상담방법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근후원장은 "21세기 상담계의 대안으로 떠오른 불교적 수행이 현실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 불교학과 교수 왜 안뽑나

## 16일 동국대이사회 상정조치 안해 유식학 등 3개 분야 4년째 결원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과 결원 교수 임용이 또다시 좌초됐다. 동국대는 올해 '유식학' '한국불교사' '종교학' 분야의 신규 교수를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16일 열린 제172차 동국학원 이사회에서 '임용 대상자' 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유식학' '한국불교사' '종교학' 분야의 교수 결원을 4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교계는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연구하는 '한국불교사'와 심리학과 불리학 등의 자연과학과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 '유식학·종교학'의 전공 교수를 충원하지

못하는 이유에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 97년 이후 불교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따라 동국학원 이사와 교수 스님 간의 반목이 심했다. <본지 278호 2면 참조> 동국대 교수 임용 절차는 '공고→접수→교원초빙위원회 자격 검토→학과 교수 심사→교원초빙

위원회 재심사→총장 면접 후 임용 적격자 선발→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는데, 이중 '학과 교수 심사' '임용 적격자 선발' '이사회 의결' 등 세 과정에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학과 교수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질적(質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수 '재량' 말고는 뚜렷한 평가 기준

이 없는 탓에 학맥에 연연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임용 적격자 선발 및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평가에 따른 성적 순위보다는 특정신분과 힘의 논리에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서울캠퍼스 불교학과 '임용 적격자'를 선발·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것도, 이 같은 불협화음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교대의 현직 교수 절반 정도가 수년 내 정년퇴임할 것으로 예상돼, 동국대의 경우 임용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종욱 기자

## 달라이라마 방한 준비위 내달 19일 '공식 출범'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는 9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연강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수덕사 주지 법정스님을 상임대표로 선출하는 한편 종교·시민단체 지도자들을 공동대표로 구성, 범국민적인 조직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준비위 참가자는 공동대표, 지도위원, 자문위원, 집행위원 등 모두 500~600명선이 될 전망이다. 준비위는 이날 로튼 남령(Lotn Nam Ling) 초청 티베트 전통음악 회도 가질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 조계종 5급 승가고시 내달 6일 직지사서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무비)는 9월 6일 오후 12시 20분 직지사 행자교육원에서 '제19기 행자교육원 5급 승가고시'를 실시한다. 시험과목은 사미(사미니)율의, 부처님 생애, 초발심 자경문, 위의문, 기초교리, 조계종사, 고승전, 예식의개, 작법, 습의 등 10개 과목이다. 대상은 16일 개원한 19기 행자교육원 입교자 230명(사미 121, 사미니 109명) 전원이며,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승가고시 불학격자도 포함된다. 김원우 기자

## 현대만평 박구원

오래사셔야...

###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 佛子世界

결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Tibet  
**금단의大地 티베트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m 남니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베트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베트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야! 時空을 넘니드는 티베트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베트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년 항공권) 중국 및 티베트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발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여객에서 선보이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반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년 항공권)

- 일 정 : 델리-파라나시(뉴아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살리(대림정사,아소카 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위성, 기원정사)-롬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발일 : 15명이상 수시 출발

**불교 최대의 석굴 "막고굴" 탐방 4박 5일 ₩1,090,000**

'진'시황제의 명마중...비밀,대안암 등 탐방

- 일 정 : 서울-서안-돈황-광판-서안-서울
- 포함사항 : 항공료, 숙식, 중국비자, 입장료, 전용차량
- 출발일 : 9/18, 9/25, 10/2, 10/9

## 古都의 땅을 찾아...

日本 佛教 文化探訪 5일 ₩1,050,000

- 일 정 : 서울 - 오사카 - 교야 - 나라 - 교토 - 사가 - 오사카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비자 비용, 공항세, 보험, 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전일정 식사
- 출발일 : 9/1, 13, 22

우리의 멋스러움이 녹아 스며있는 일본 불교문화 그 곳을 찾아 떠나는 일본 성지 순례...

- 오사카 : 일본 제2의 도시, 한국인의恨이 서린 땅
- 교 토 : 일본 문화의 보고로 지금까지도 남아 숨쉬는 옛 古都의 자태
- 나 라 : 백제의 불교가 전파된 고대문화의 중심지

동남이 불교예술의 보고를 찾아 떠나는

**미얀마 성지순례 7일 ₩1,550,000**

- 일 정 : 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민곤-헤호-양곤-방콕-서울
- 출발일 : 9/20일
- 미얀마 천년 고도의 파간 : 세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야파고다, 남파야, 세산도동
- 공파웅 왕조의 역사 유적지 : 730개의 석장경이 모여진 쿠도도파고다 차욱토티파고다, 만달레이힐파고다
- 민군 종, 민군 대탐
- 수소민족의 풍속 여행지해호 : 형태와 모양이 다른 수천 불상을 모신 펜 다야 동굴사원, 인레호수
- 미얀마의 수도 양곤 : 화불이 모여진 차욱타지파고다, 보타타웅파고다, 까파에파고다(진신사리진대법회) 미얀마의 상징 세다곤파고다. 위빠사나 명상센터 마하시 수도원, 아웅산조지등.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